

# 숨은 실패, 강사의 고민

- 벌써 3회째 지속되는 고민
- 이렇게 가도 좋은가?
- 분명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지만, 때론 성과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?
- 자세히 설명하면 학생들이 포기하고,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죄책감이 든다
- 평소 윤성관 대표에게 하소연하곤 했지만, 듣는 사람도 짜증날 것 같아서 이번엔 혼자 고민함
- 자세히 설명하는 걸 따라오는 학생들이 좋은 건 강사가 아닌 팀장의 마음일까?
- 아직 나는 멀었나보다



서울여대

Guru II